

“공정하고 신뢰받는 광주체육 구축”

2025 새해설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스포츠의 가치, 공정과 존중으로 신뢰받는 광주체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며 “일상 속 스포츠를 기회로, 신뢰받는 체육 행정을 비전으로 '전국체전 성적 향상, 생활체육 참여 확대, 공정한 체육 행정,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4대 목표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전국체전 성적 향상’을 위해 학교 체육과 전문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으로 광주를 빛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전 회장은 “올해 전국체전을 대비해 우수선수 선발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지도자들을 배치하고, 학교·종목별 전문적인 훈련과 과학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스포츠과학연구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성공 개최, 스포츠도시 위상 제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스포츠과학 접목 우수선수 조기 선발·육성 경기력 강화

표 설정하고 시민이 건강한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우선 지역 체육계의 큰 과업인 종목단체 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테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체육이 제도약한 계기로 삼을 복안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오는 9월에 열리는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광주체육인의 역할을 모아 성공개최를 추진하고,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광주시교육청과 협조해 국내·외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광주 건설을 위해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전 회장은 “시민 모두가 체육을 통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5개 구에 일반·어르신 지도자 84명을 배치하고 25개소의 생활체육공장과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5개소,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행복나눔 교실사업 등을 활성화해 스포츠 복

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체육행정’으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종목단체와 선수, 동호인, 지도자, 임직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예약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2개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노후된 체육시설은 꾸준히 개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 선수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민선 7기 3년차를 맞이해 지역체육인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체육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도민 소통·화합 열린 전남체육 구현”

2025 새해설계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성을 위해서는 전문체육지도자 임용 관리, 전략종목 육성 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학교-생활-전문체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반 활성화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체육인 양성에 진력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남체육 연계육성 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각종 팀 장단에 전력 다할 계획이다.

으로 증명해내겠다”며 “도민 화합과 축제 한마당인 생활·어르신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로 도민 활력 증진은 물론 생활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전남체육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회원단체 등과 체육단체의 품격을 높이

엘리트·생활체육 균형발전도모...선순환시스템 구축 스포츠클럽 활성화, 국제경쟁력 갖춘 스포츠 인재 양성 전남체육 연계육성 초석 팀 창단 시너지 효과 기대

지나해 고흥군청 태권도팀 창단에 이어 내달 목포대 육상팀과 탁구팀 창단을 준비중이며, 내년 남자양궁도 4대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스포츠로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먼저 공정하고 선진적인 체육행정 실현을 위해 공정인사 및 양질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세계로 응모하는 전남체육인 육

겠다”며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포츠 ESG 실천 참여, 전남체육 CI 제작 추진,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전남체육을 브랜딩해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올해는 전남체육이 더 높이 비상하는 용비의 한해가 될 것”이라며 “올해 전남도체육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화합, 소통으로 열린 전남체육’의 비전을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4개 중점과제, 5개 세부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남느냐...떠나느냐...‘Son’의 선택은?

EPL 겨울 이적시장 오픈...1년 연장 옵션 유력한 가운데 다양한 루머 ‘흔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겨울 이적시장이 현지시간 1일부터 열리면서 올해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는 ‘캡틴’ 손흥민(32)의 ‘계약 연장’ 여부를 놓고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월드 클래스 공격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2021-2022시즌 정규리그에서 23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2016-2017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무려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토트넘의 ‘레전드’ 자리를 예약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이후 지금까지 공식전 430경기에서 무려 169골을 넣어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2천200만파운드(약 393억원)의 이적료로 토트넘과 5년 계약을 했던 손흥민은 2018년 7월 재계약을 통해 2023년까지 계약 기간을 늘렸고 2021년 7월 두 번째 재계약을 하면서 2025년 여름까지 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팬들과 언론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재계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무엇보다 2025년 7월 33살에 접어드는 손흥민의 나이가 장기계약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고, 지난해 여름부터는 재계약 대신 토트넘이 ‘1년 계약 연장 옵션’만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줄지어 쏟아졌다.

하지만 팬들과 언론의 높은 관심과 달리 토트넘의 움직임은 미적지근하다.

손흥민 역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내놓을 뿐이다.

해외 언론들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만료가 1년을 남긴 순간부터 손흥민의 ‘차기 동지’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이상 튀르키예) 등을 언급한 상태다.

EPL 이적시장 개장과 함께 손흥민을 둘러싼 해외 매체들의 이적 전망도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다.

손흥민은 올해 여름 계약이 끝나게 돼 EPL 구단은 물론 다른 해외리그 팀들과도 협상할 수 있다.

토트넘으로선 올해 33살로 접어드는 손흥민과 장기계약을 하는 대신 1년 연장 계약을 발동한 뒤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키는 게 최선의 선택지라는 게 해외 매체들의 분석이다.

EPL과 더불어 프랑스 리그앙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1월 겨울 이적시장이 열린 가운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A는 2일 오픈됐고, 대부분 현지 시간 2월3일에 문을 닫는다.

한 달에 걸친 겨울 이적시장에 손흥민과 토트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광주FC, ‘중원 핵심’ 최경록과 재계약...2026년까지 동행

프로축구 광주FC가 중원의 핵심 최경록(29)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광주는 2일 “지난 시즌 맹활약한 최경록과 2026년까지 2년 재계약을 체결하고 동행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2014년 분데스리가 2 FC장크트파울리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최경록은 독일 생활을 마무리하고 2024년 광주

에 입단해 K리그 무대에 데뷔했다.

입단하자마자 전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최경록은 지난 시즌 K리그 34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최경록은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패스와 왕성한 활동량으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베테랑 선수로서 젊은 선

수들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경기장 안팎으로 영향력을 보여줬다.

최경록은 “K리그 무대에서의 첫 팀인 광주와 동행이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지난 시즌 팬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희중기자

2023 여자 에페 국가대표 정지윤

광주 서구청 펜싱팀 입단

서구청 여자 에페 펜싱팀이 전 국가대표 정지윤(26)을 영입, 전력을 보강했다.

정지윤은 한체대 졸업 후 경기도청에 입단했으며 2022년 국가대표 선발전 2위로 2023년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청에서 5년간 선수생활을 이어 온 정지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 새 팀을 물색했고, 팀 분위기가 좋은 서구청을 선택했다.

정지윤은 타고난 경기 감각과 힘이 좋아 상대선수의 공격을 막고 찌르는 빠르다 기술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구청 여자 펜싱팀은 국가대표 강영미와 전 국가대표 최은숙, 김수빈 등 기존 선수에 전 국가대표 정지윤이 합류하며 한층 더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서구청장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정지윤이 박광현 감독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구청 제공>

박광현 서구청 펜싱팀 감독은 “새해 새롭게 합류한 정지윤과 함께 팀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팀 전력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경쟁력을 키워 각종 전국대회에서 서구청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전남 드래곤즈, 브라질 공격수 레안드로 영입

이번 시즌 프로축구 K리그 대전하 나시트전에서 뛰었던 브라질 공격수 레안드로(29·사진)가 K리그 전남 드래곤즈 유니폼을 입었다.

전남 구단은 레안드로를 영입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브라질 연령별 대표 출신의 레안드로는 브라질, 포르투갈, 조지아 등 다양한 리그에서 활동하다가 2020년 K리그 2 서울 이랜드에 입단하며 한국 무대에 진출했다.

이랜드에서 두 시즌 동안 리그 61경기에 출전해 13골 12도움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던 레안드로는 2022시즌 대전에서 합류해 리그 9골 5도움을 기록하며 1부 승격에 앞장섰다.



지난 시즌 대전 소속으로 K리그 2골 7도움을 남겼던 그는 2024시즌에도 K리그 무대를 누볐으나 6월 경기 중 발목을 크게 다쳐 계약을 해지하고 대전을 떠나야 했다.

전남 구단은 “브라질로 돌아가 재할에 전념하며 정상적인 상태로 몸을 끌어 올린 레안드로는 이번 겨울 여러 K리그 구단의 러브콜을 받았고,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전남을 택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